

# 한국 사회의 전염병 관련 표현에 대한 언어문화 연구

: 사전을 중심으로

박은하(대구대)

## I. 서론

과거에는 전염병이 인류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오랜 시간을 거치며 치료제와 치료법 등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듯하였다. 의학이 발달하듯이 과학기술도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인간이 전염병보다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핵전쟁이나 지구의 환경파괴 등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2020년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인간은 또 다시 전염병의 감염과 확산 등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전염병은 인간의 삶을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치, 경제, 교육, 법률 등 모든 사회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코로나19를 통해 전염병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절실하게 와 닿고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한국 사람이 전염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전염병과 관련한 연구는 의학, 보건학, 약학, 감염학, 생명공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 반영된 전염병에 대한 어휘와 표현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전염병 관련 언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전염병 관련 표현을 통해 언중들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전염병 관련 문화도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전염병 관련 표현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전염병에 대한 언어문화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면, 언급한 연구 목적을 위해 한국 사회에 발생한 주요 전염병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주요 전염병명을 중심으로 사전을 검색하여 유사어와 관련어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전염병에 대한 여러 명칭과 이와 관련한 전염병 관련 어휘를 논의함으로써 언중들이 전염병을 어떻게 지칭하고 이를 나타내고자 하였는지를 알고자 한다. 또한 전염병 관련 어휘를 바탕으로 사전에 나오는 용례를 조사하여 전염병 관련 표현을 분석하는데 이 분석 결과로 전염병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이와 같이 전염병 관련 어휘 및 표현을 고찰함으로써 주요 전염병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및 연구 내용

### 1. 선행 연구 검토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염병과 관련한 연구는 질병 위주로 의학적 관점에서, 또는 인간 위주로 인류학 내지 사회학적 관점 등에서 다룰 수 있다. 전염병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 언어학 분야에서 논의한 전염병 관련 연구는 거의 미비한 상태이다.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2020년에 전염병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전염병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어학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최근에 나온 전염병과 관련한 언어학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송미영(2020가), 송미영(2020나) 송현주(2020)이 있다.

송미영(2020가)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의 한글 의학 교과서 세 종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전염병(두창, 콜레라) 어휘를 살펴본 연구이다. 당시 근대 의학의 도입으로 전통적 질병명에 서구식 질병명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전염병인 만큼 이를 지칭하는 민간 용어와 의학 용어가 다양하다고 하였다. 송미영(2020나)에서는 송미영(2020가)에

서 다루지 않은 세 가지 전염병(장티푸스, 말라리아, 한센병)을 대상으로 그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질병명이 원인, 증상, 주기, 사용상의 편이 등을 고려하여 쓰임이 변화되었다고 밝혔다.

송미영의 연구(2020가, 나)는 문헌을 중심으로 전염병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이지만 하나는 전염병 명칭을, 다른 하나는 전염병 명칭을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전염병을 두루 조사한 것이 아니라 두 세 개의 전염병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송현주(2020)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전염병의 개념화 양상을 연구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를 주제로 출판된 단행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치료는 전쟁으로, 특성은 인간으로 이해되고 그와 관련된 비유 표현이 나타나며 방역과 관련해서 새로운 비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질병을 대상으로 한 언어학 관점의 연구가 있는데 전혜영(2016)은 질병에 대한 은유 표현을, 전혜영(2015)는 질병 명칭을, 이갑남(2020)은 질병 관련 속담을, 그리고 이갑남(2017)은 질병 관련 완곡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전혜영(2016)은 질병에 대한 은유를 통해 질병관을 밝히고자 말뭉치에서 '-병'으로 검색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질병에 대한 은유의 양상은 물건, 인간, 마귀, 전쟁, 그릇, 식물, 유체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전혜영(2015)는 '-병'으로 된 단어를 대상으로 질병 명칭을 발생원인, 증상, 발병지역 등의 의미 유형과 '입시병, 공부병, 중2병'처럼 확대 사용 현상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갑남(2017)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금기어 가운데 죽음과 질병을 대상으로 이를 대체하는 완곡 표현을 대조 분석하였다. 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안을 주려는 심리에서 완곡한 의미로 대체하여 쓰인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 언어학 분야는 아니지만 김은정(2015), 이미순(2013), 우미영(2004)는 한국 문학 작품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김은정(2015)는 박완서의 노년 소설에 나타나는 암, 중풍, 치매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미순(2013)은 김수영의 문학에서는 당시 사회의 일상성이 낯은 질병으로 신경증과 연탄가스 중독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우미영(2004)는 이광수의 초기 소설을 통해 광기를 질병의 한 영역으로 보고 논의하였다.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이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염병 관련 앞선 연구에서 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전염병의 유형을 조사하고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전염병을 보고 주요 전염병이 무엇인지를 선정한다.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전염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아래 표에서 제시하였듯이, 전염병 가운데 주로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전염병이 많이 전파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감염되며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룰 주요 전염병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주요 전염병

감염 경로 및 원인에 의한 구분 <sup>1)</sup>	전염병명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옮는 전염병	결핵, 수두, 천연두, 홍역, 사스, 메르스 <sup>2)</sup>
사람이나 물건을 만져서 옮는 전염병	나병, 에이즈
먹을 것과 마실 것에서 옮는 전염병	장티푸스, 콜레라
동물이나 곤충을 통해 옮는 전염병	말라리아, 페스트

먼저 전염병 관련 어휘를 살펴보는데 한국어 화자들이 주요 전염병명을 어떻게 불렀는지 주된 전염병명은 물론이고 그의 다양한 명칭인 유의어를 사전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한다. 전염병 명칭은 그 병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병에 대한 언중의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염병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국어사전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9)에서 펴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 그리고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1998)의 『연세한국어사전』이다.<sup>3)</sup> 이와 함께 2016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인터넷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을 함께 검토한다.

다음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주요 전염병명의 의미와 유의어를 적은 예시이다.

<표 2> 주요 전염병명의 정의와 유의어 예시

전염병명		<가>/<라>사전	<나>사전	<다>사전
천연두	뜻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의 법정 전염병.	법정 전염병의 하나.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하여 일어난다.	열이 나고 두통이 나며 온몸에 발진이 생겨서 자칫하면 얼굴이 쉽게 되는 전염병.
	유의어	두창	두병, 두역, 두창, 시두, 역신, 역질, 천행두, 포창, 호역, 손님	두창, 마마, 포창, 손님마마
홍역	뜻	홍역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에 의하여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	홍역 바이러스에 비말 감염(飛沫感染)되어 일어나는 급성 전염병.	주로 어린아이에게 발생하며, 높은 열이 나고 온몸에 빨간 열꽃이 돋는 급성 전염병.
	유의어	없음	마진, 진양, 홍진	장질부사
사스	뜻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일종으로 급성 폐렴을 일으키는 질환.	호흡기 질환의 하나.	없음
	유의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한국 사회의 주요 전염병명을 중심으로 국어사전을 검색한 결과,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의어가 다양하게 나왔다. 전염병명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의미 기술을 함께 논의한다. 표에 제시하지 않은 다른 전염병명의 유의어 및 관련어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 1) 감염 경로 및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거나 혹은 불분명할 수 있으나 주로 전파된다고 하는 감염 경로 및 원인으로 구분한 것이다.
- 2) 사스와 메르스는 한국에서 각각 2002년과 2015년경에 유행한 전염병으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최근에 발생한 질병이라 자료가 많지 않지만 조사한 것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3) 이하에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나>, 연세 한국어사전을 <다>, 우리말샘을 <라>로 표기하도록 한다.

둘째, 사전에 나오는 주요 전염병명의 용례를 살펴본다. 한국어 화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국어사전에 전염병의 용례로 어떠한 것이 실려 있는지를 조사하고 살펴본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속담, 관용구 등도 검토한다. 사전은 한국어 화자들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주며 해당 단어에 대한 의미 기술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단어에 대한 태도 등 언어와 문화적 요소가 총체적으로 녹아 있다.<sup>4)</sup> 그러므로 사전에 나오는 주요 전염병의 의미 기술은 물론이고 그 용례도 분석한다. 조사한 결과, 관련 용례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호귀별성, 두신호귀’ 등처럼<sup>5)</sup> 관련 어휘는 물론이고 주요 전염병과 관련한 속담이나 관용구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역질 흑함(黑陷) 되듯 한다, 마마 그릇되듯, 염병에 까마귀 소리, 염병을 떨다, 홍역을 치르다, 학(질)을 떼다’ 등이 있다. 이들은 불리한 징조가 나타났음, 좋지 않은 징조가 보임, 불길하여 귀에 아주 거슬리는 소리, 엉뚱하거나 나쁜 짓을 함, 몹시 애를 먹거나 어려움을 겪음, 괴롭거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느라 진땀을 빼거나 그것에 거의 질려 버림을 각각 이르는 말이다.

다음은 연구 대상인 13개 전염병과 관련한 예문 개수이다.

<표 4> 전염병의 예문 개수

전염병	예문 개수	전염병	예문 개수
결핵	86	수두	11
천연두	61	홍역	55
사스	21	메르스	36
코로나19	134	나병	37
에이즈	82	장티푸스	30
콜레라	90	말라리아	66
페스트	15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사어와 관련어를 포함해서 연구 대상인 13개 전염병을 표제로 조사해 봤을 때, 네 사전에 나오는 예문은 모두 총 724개이다.

### Ⅲ. 전염병 관련 어휘

전염병 관련 어휘는 사전에 나오는 주요 전염병의 명칭과 그 유의어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주요 전염병명의 어휘를 알아본다. 또한 사전에 기술된 전염병명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전염병명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전염병을 감염 경로 및 원인에 따라 구분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옮는 전염병에 속하는 결핵, 수두, 천연두, 홍역, 사스, 메르스, 코로

4) 이정복(2007: 258)은 사전 편찬자나 집필자의 이념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사회문화적 산물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술에 포함된 이념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은 제외한다.

5) 천연두 관련 어휘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천연두를 쳐뜨린다는 여자 귀신을 뜻한다.

나19의 명칭과 사전에 나타난 유의어 및 관련어를 살펴본다. 먼저 ‘결핵’의 비슷한 말로 분석 대상인 네 종의 사전 가운데 <가>와 <나> 사전에는 유사어가 없었으며 <다> 사전에서는 폐결핵, <라> 사전에서는 결핵병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다> 사전의 경우, 결핵 앞에 폐가 결합되어 폐결핵이라고 하였는데 결핵의 뜻을 ‘몸의 조직, 특히 허파에 작은 균은 알맹이를 만드는 균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풀이하여 결핵이 폐결핵과 의미가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결핵의 관련어로 폐결핵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전은 결핵에 병을 결합한 결핵병이 비슷한 말로 나오는데 결핵이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병명의 단어 뒤에 병이라는 말을 붙여서 질병의 뜻을 더 나타내고 있다.

‘수두’는 네 사전 모두 공통적으로 ‘작은마마’라는 유사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마는 천연두의 일상적으로 일컫는 말로, 천연두를 마마로, 수두를 천연두에 견주어 작은마마로 칭하였다. <다> 사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전에서는 수두의 유의어로 ‘수포창’을 나타내었는데 수포창은 한방에서 이르는 말로, 물집으로 부풀어 오르는 부스럼이라는 ‘水疱瘡’ 한자어이다. 다른 유사어로, 소두, 수두가 있는데 모두 마마를 뜻하는 한자어 앞에 작은 뜻의 소(小)와 물을 의미하는 수(水)가 붙여서 된 말이다. <라> 사전에서는 수두의 비슷한 말로 ‘수화’와 ‘물마마’를 제시하였고 물마마에서 물과 수화의 수(水)도 모두 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화에서 화(花)는 꽃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물집으로 부풀어 오는 것을 이렇게 일컬었다.

‘천연두’를 살펴보면 <다> 사전에서는 유사어가 없었고 나머지 세 사전에서 비슷한 말로 ‘두창’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천연두(天然痘)는 천연의, 즉 자연적으로 두창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두창의 ‘두(痘)’는 마마인 이 질병을 뜻하는 한자어이며 ‘창(瘡)’은 부스럼을 의미하는 한자어다. <나>와 <라> 사전에서 ‘손님, 두역(痘疫), 두창(痘瘡), 역신(疫神), 역질(疫疾), 천행두(天行痘), 호역(戶疫)’이 공통되게 나타난 천연두의 유의어이다. 각 사전에 나타나는 비슷한 말로, <나> 사전에서는 ‘두병(豆病), 시두(時痘), 포창(瘡瘡)’, <라> 사전에서는 ‘마마(媽媽), 손님마마, 역환(疫患), 열사흘부스럼’의 유사어가 있었다. ‘손님’과 ‘마마’는 ‘손님마마’의 줄임말이다. 손님과 마마로 불린 것으로 보아 귀한 존재(신)로 가리켰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역’, ‘역신’, ‘역질’, ‘호역’에 나오는 ‘역(疫)’은 전염병을 나타내는 한자어이다. 두역은 천연두의 다른 말인 마마와 전염병이 결합된 말인데 마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한다는 여신을 뜻한다. 마마의 비슷한 말로는 ‘강남-별성(江南別星), 두신(痘神), 두신-호귀(痘神胡鬼), 별성(別星), 온귀(瘟鬼), 호구-별성(戶口別星), 호귀-별성(胡鬼別星)’이 있다. 강남에서 주기적으로 온다고, 오랑캐 귀신 및 전염병 귀신이라고 해서 이를 부르는 여러 유의어가 있다. 천연두의 비슷한 말로 <나> 사전의 ‘역신’은 전염병 귀신, ‘역질’은 전염병과 병을 합한 것, ‘호역’은 집집마다 찾아오는 전염병을 각각 나타낸다. ‘두병’은 천연두와 병을 의미하는 한자어가 결합한 것이고 ‘시두’는 ‘수두’의 방언이며,<sup>6)</sup> ‘포창’은 천연두와 부스럼을 뜻하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다.<sup>7)</sup> <라> 사전에 나오는 ‘역환’은 각각 전염병과 근심의 뜻을 지닌 한자어의 결합이고 ‘열사흘부스럼’은 고유어로 글자 그대로 십삼일 정도 앓음을 나타낸 말이다.

‘홍역’은 어린이에게 그리고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홍역’의 유사어 및 관련어는 <가>와 <다> 사전에는 없고 <나>와 <라> 사전에 나오는데 두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사어는 ‘마진’이다. 사전에 ‘마진’은 홍역의 이전 말이라고 뜻풀이 되어 있으며 두 한자어

6) 신동원(2013: 165)에서 시두는 중두(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인체의 피부에 넣는 일)의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 현상에 초점을 둔 단어로 보았다.

7) 신동원(2013: 161-162)에 의하면 1938년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서는 천포창(줄여서 ‘포창’)을 ‘매독’이라고 했다. 18세기 저작인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도 ‘천포창 일명 양매창(양매창)이라 하여 천포창(天疱瘡)을 양매창(楊梅瘡), 즉 매독이라고 보았다고 한다.

모두 홍역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나> 사전에는 ‘마진’ 외에도 ‘진양’, ‘홍진’이 있는데 ‘진양(疹恙)’은 홍역과 병을 의미하는 한자어의 결합이고 ‘홍진(紅疹)’은 붉음과 홍역의 뜻을 가진 한자어로 된 말로, 홍역에 걸리면 온 몸에 붉은 발진이 돌아나 이를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는 모두 호흡기 질환이며 앞에서 기술한 전염병과 달리, 근래에 유행한 전염병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의 경우 <가>와 <다>의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메르스’는 <나>와 <라> 사전에 검색이 되어 뜻풀이는 나타나지만 메르스의 유사어 및 관련어가 없다. 먼저 ‘사스’의 뜻을 살펴보면, <나> 사전에서는 ‘호흡기 질환의 하나.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호흡 곤란, 저산소증, 엑스선상의 폐렴 증상 등이 나타나며,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 부진, 발진, 설사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사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일종으로 급성 폐렴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뜻풀이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열을 동반하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폐렴으로 인하여 호흡 곤란이 일어난다. 감염력이 심해 2002~2003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확산된 적이 있었다)은 원인과 증상으로 기술되어 있다.

‘메르스’와 ‘코로나19’의 각각의 뜻풀이와 예문이 <나>와 <라> 두 사전이 동일하다. ‘메르스’의 뜻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이며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따위의 증상을 보인다’고 기술되어 있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하여 일어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고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폐렴, 발열, 근육통, 설사 따위의 증상을 보인다. 2019년에 발생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뜻풀이 되어 있다.

‘사스’와 ‘코로나19’는 <나>와 <라> 두 사전에서 비슷한 말이 각각 공통되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유사어가 하나이지만 ‘코로나19’는 ‘시오브이아이디(COVID), 시오브이아이디-십구(COVID十九), 시오브이아이디-일구(COVID一九), 신종 코로나(新種←corona virus), 코로나 감염증(←corona virus感染症),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 virus感染症),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십구(coronavirus感染症十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구(corona virus感染症一九), 코로나십구(corona十九), 코로나십구 감염증(←corona virus十九感染症), 코로나십구 바이러스(corona十九virus), 코로나십구 바이러스 감염증(corona十九virus感染症), 코로나일구 감염증(←corona virus一九感染症), 코로나일구 바이러스 감염증(corona一九virus感染症), 코비드(COVID), 코비드-십구(COVID十九), 코비드-일구(COVID一九)’로 유사어 및 관련어가 다수 제시되어 있다. 사전에서 제시하는 ‘사스’의 유사어는 유사 어휘라기보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영어 표현,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머리글자인 ‘SARS’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메르스’도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에서 단어의 첫 글자로 이루어진 ‘MERS’이다. ‘코로나19’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rona Virus Disease)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므로 유사어가 영어 및 그 영어의 줄임말과 숫자 등으로 조합된 것들이라 다양하면서도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는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옮는 전염병의 유사어 및 관련어를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사람이나 물건을 만져서 옮는 전염병인 나병과 에이즈의 유사어 및 관련어를 살펴본다. ‘나병’을 살펴보면 네 사전에 나오는 뜻풀이 보면 <가>와 <나> 사전의 경우, 나병균이나 나균에 의해 감염된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다>와 <라> 사전에서는 증상 위주로 기술되

어 있다. ‘살이 썩어 들어가며 몸의 털이 빠지고 치료가 어려운 피부 전염병’, ‘눈썹이 빠지고 살이 썩어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전염병’이라고 각각 적혀 있다.

‘나병’의 유사어 및 관련어로 <가> 사전에서는 나병환, <나> 사전에서는 개라, 문둥병, 천형병, 한센병, <다> 사전에서는 문둥병과 한센병, 그리고 <라> 사전에서는 나병환, 대풍, 대풍질, 대풍창, 문둥병, 풍병이 있다. 세 사전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유사어는 ‘문둥병’이다. 문둥병은 ‘문둥’에다가 ‘병’이 붙어서 된 것인데 ‘나병’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나병’은 병원균이 피부에 침투하여 지각 마비, 수족과 안면이 변형되는 등 얼굴과 같이 신체 외모가 엉망이 되므로 이를 비하하여 문둥으로 표현하였다. <가>와 <라> 사전에서의 ‘나병환’은 앞에 나온 전염병과는 달리, ‘나병’을 병환, 즉 높여 나타낸 말이다. <나>와 <다> 사전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한센병(Hansen病)’은 나병균을 발견한 한센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나> 사전에 나오는 ‘개라(疥癩)’와 ‘천형병(天刑病)’, <라> 사전의 ‘대풍(大風)’, ‘대풍질(大風疾)’, ‘대풍창(大風瘡)’, 풍병(風病)을 살펴본다. ‘개라(疥癩)’에서 ‘개’는 옴을, ‘라’는 문둥병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천형병’은 한자어가 하늘에서 형벌로 내린 병이라는 의미이다. ‘대풍(大風)’, ‘대풍질(大風疾)’, ‘대풍창(大風瘡)’, 풍병(風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크다’와 ‘중풍’의 뜻을 지니는 한자어로 된 말인 점이다. 나병을 벌에 가까운 병으로, 또는 큰 중풍이 오는 병으로 나타냄으로써 이 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질’은 병을 ‘-창’은 부스럼을 뜻하는 한자어다.

‘에이즈’도 ‘사스’,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에서 어두에 오는 글자를 조합해 만든 병명이다. 그래서 네 사전 모두 유사어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증후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를 한국어로 번역한 말이다. <가> 사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전에서는 에이즈의 표기인 ‘AIDS’를 유사어 및 관련어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라> 사전에서는 ‘후천 면역 결핍증’을 비롯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 ‘후천 면역 증후군’, ‘후천성 면역 증후군’ 모두 제시할 뿐만 아니라 ‘후천성 면역 부전 증후군(後天性免疫不全症候群)’도 유사어로 나타내었다. ‘에이즈’는 후천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몸 안의 면역 기능이 없는 전염병인데 이 병명에 온전/완전하지 않다는 뜻의 ‘부전’을 포함한 말로 표현한 것이다. 사전에 나오는 ‘에이즈’의 뜻풀이로는 <가>, <나>, <라> 세 사전이 유사하게 ‘면역 능력/기능이 떨어져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다>의 사전은 ‘주로 비정상적인 성 접촉이나 감염된 피를 통해 감염되는 위험한 병’처럼 감염 경로 및 원인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번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서 옮는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콜레라의 유사어 및 관련어를 알아본다. 입을 통해 전염되는 병인 ‘장티푸스’는 장(腸)과 typhus를 결합해서 만든 이름으로, 티푸스균이 창자에 들어가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세 사전에서는 장티푸스의 뜻을 풀이하면서 티푸스균을 언급하고 있으나 <다> 사전에서는 단순히 장에 생기는 전염병으로 기술하고 있다. 장에서 ‘장티푸스’의 유사어는 네 사전 모두 공통되게 ‘장질부사’로 제시하고 있다. 장질부사는 ‘창자’와 ‘막는다’는 뜻을 가지는 한자어를 사용하였으나 장티푸스의 음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이외에 <나> 사전에서는 유사어 및 관련어로 ‘복질부사’가 있고 <라> 사전에서는 ‘염병’이 있다. ‘복질부사’는 창자의 한자어 대신에 배 또는 창자를 뜻하는 ‘복(腹)’ 한자어를 사용해서 복질부사가 되었다. ‘염병(染病)’은 한자어를 보면 전염되는 병을 의미하지만 이는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콜레라’를 살펴본다. 세 사전에서는 ‘콜레라’의 뜻풀이에 콜레라균에 의해 전염되

는 감염병이라고 원인이 제시되어 있으나 <다> 사전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물과 음식으로 옮고 높은 열과 심한 구토와 설사를 하는 급성 전염병’이라고 감염 경로 및 증상을 기술하고 있다. ‘콜레라’의 유사어와 관련어로 네 사전에 공통되게 제시되어 있는데 ‘쥐통’과 ‘호역(虎疫)’이 있다. ‘콜레라’를 ‘호열자’라고도 부르는데 ‘콜레라’, ‘고레라(일본의 음역어)’, ‘호열자’의 ‘호’와 전염병을 나타내는 ‘역’을 합하여 ‘호역’이라고 하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천연두의 유사어에 ‘호역(戶疫)’이 있었으나 콜레라의 ‘호’와 한자어가 다르다.<sup>8)</sup> <다> 사전에서만 유사어 및 관련어 없이 ‘콜레라’만 나온다. <가>와 <라> 사전에서는 ‘쥐통’과 유사하게 ‘젓병’이 있으며 <나>와 <라> 사전에서는 ‘괴질’이 있다. ‘쥐통’, ‘젓병’,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쥐를 감염 매개체로 여겼다. ‘괴질’은 ‘콜레라’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괴질(怪疾)’에 적힌 한자의 뜻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병이라는 말이다. <나> 사전에 ‘콜레라’의 유사어로 ‘호열자(虎列刺)’가 있는데 이는 ‘콜레라(cholera)’라는 외국어의 음을 한자음으로 나타낸 ‘콜레라’의 음역어이다. 그런데 신동원(2013: 148-149)에 의하면 ‘콜레라’는 1822년에 일본에서 첫 유행을 하여 일본어 발음으로 ‘고레라’라고 했다고 한다. ‘고레라’에 대한 한자어는 호열랄(虎熱刺)이지만 조선에서 ‘랄(刺)’을 거의 비슷한 글자인 ‘자(刺)’로 읽게 되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신조어이고 조선인에게 훨씬 익숙하며 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는 글자인 ‘자’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이나 곤충을 통해 옮는 전염병인 말라리아와 페스트의 유사어 및 관련어를 살펴보면 주로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페스트’는 쥐에 의해 감염되는 병이다. 네 종의 사전에서 말라리아의 뜻을 보면, 세 사전에서는 모두 말라리아 병원충(모기)을 언급하면서 감염 원인을 밝히고 있지만 <라>에서는 ‘몸의 열이 주기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전염성 열병’이라고 열과 관련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네 사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말라리아’의 유사어는 ‘학질’이다. ‘학질((瘡疾)’은 말라리아와 병의 의미를 가지는 한자어로 결합된 말이다. <다> 사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전에서는 ‘말라리아’의 유사어로 ‘학(瘡)’이 있는데 이 글자가 ‘말라리아’를 뜻하는 한자어이므로 하나의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 <나> 사전에서는 ‘학질’, ‘학’ 외에 ‘학병’을 제시하고 있다. 말라리아를 나타내는 ‘학’에 ‘병’이 결합한 것이다. <가>와 <라>사전에서는 유사어로 ‘말라리아열’이 있는데 ‘말라리아’에 ‘열(熱)’이 붙여서 만든 이름이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갑자기 고열이 나므로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결합되었다.

‘페스트’의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세 사전에서는 감염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페스트균에 의해 전염되는 병이라고 기술하나 <다> 사전에서는 ‘벼룩이나 쥐 등에 의하여 전염’된다고 하여 감염 매개인 벼룩이나 쥐로 표현하는 부분이 다르다. 나머지는 증상을 기술하는데 네 사전 모두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다. ‘페스트’의 유사어와 관련어로 네 사전 모두에서 ‘흑사병’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흑사병(黑死病)’은 피부가 검게(흑색) 혹은 검은 자줏빛(흑자색)으로 변해 죽는다는 의미의 병명이다. <다> 사전 외에 다른 세 사전에는 ‘페스트’의 유사어로 ‘서역’이 있는데 ‘서역(鼠疫)’은 쥐와 전염병을 뜻하는 한자어가 결합된 말이다.

위에서 기술한 전염병 관련 유사어 및 관련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전염병의 유사어 및 관련어

8) 천연두의 호역(戶疫)은 집집마다(戶口) 찾아들어 두창 병은 전달한다고 해서 붙여졌다. 그리고 콜레라의 호역(虎疫)은 콜레라에 걸리면 발뒤꿈치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데 쥐에게 물려 이 병이 생긴다고 여겨 고양이나 호랑이로 쫓는 풍습에서 생겨난 것이다.

	<가> 사전	<나> 사전	<다> 사전	<라> 사전
결핵	없음	없음	폐결핵	결핵병
수두	수포창, 작은마마	소두, 수포창, 작은마마	작은마마	물마마, 소두, 수포창, 수화, 작은마마
천연두	두창	손님, 두병(豆病), 두역(痘疫), 두창(痘瘡), 시두(時痘), 역신(疫神), 역질(疫疾), 천행두(天行痘), 포창(疱瘡), 호역2戶疫)	없음	두역(痘疫), 두창(痘瘡), 마마(媽媽), 손, 손-님, 손님-마마(손님媽媽), 역신(疫神), 역질(疫疾), 역환(疫患), 열사흘-부스럼, 천행-두(天行痘), 호역(戶疫)
홍역	없음	마진(麻疹),진양(疹恙),홍진(紅疹)	없음	마진(麻疹)
사스	없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	없음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
메르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코로나 19	없음	시오브이아이디, 시오브이아이디십구, 시오브이아이디일구, 신종코로나, 코로나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십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구, 코로나십구, 코로나십구감염증, 코로나십구바이러스, 코로나십구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일구감염증, 코로나일구바이러스감염증, 코비드, 코비드십구, 코비드일구	없음	시오브이아이디(COVID), 시오브이아이디-십구(COVID十九), 시오브이아이디-일구(COVID一九), 신종 코로나(新種←corona virus), 코로나 감염증(←corona virus感染症),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 virus感染症),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십구(coronavirus感染症十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구(corona virus感染症一九), 코로나십구(corona十九), 코로나십구 감염증(←corona virus十九感染症), 코로나십구 바이러스(corona十九virus), 코로나십구 바이러스 감염증(corona十九virus感染症), 코로나일구 감염증(←corona virus一九感染症), 코로나일구 바이러스 감염증(corona一九virus感染症), 코비드(COVID), 코비드-십구(COVID十九), 코비드-일구(COVID一九)
나병	나병환	개라(疥癩),문둥병(--病),천형병(天刑病),한센병(Hansen病)	문둥병	나병-환(癩病患), 나병-환(癩病患), 대풍(大風), 대풍-질(大風疾), 대풍-창(大風瘡), 문둥-병(문둥病), 풍병(風病)
에이즈	후천 면역 결핍증	후천 면역 결핍증(後天免疫缺乏症), 에이아이디에스(AIDS)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에이아이디에스(AIDS),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後天免疫缺乏症候群), 후천 면역 결핍증(後天免疫缺乏症),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後天性免疫缺乏症候群), 후천성 면역 결핍증(後天性免疫缺乏症),

				후천성 면역 부전 증후군(後天性免疫不全症候群)
장티 푸스	장질부사	장질부사(腸室扶斯), 복질부사(腹室扶斯)	장질부사	염병(染病), 장-질부사(腸室扶斯)
콜레라	호역, 쥐통, 췌병	괴질, 쥐통, 호역, 호열자	콜레라	괴질(怪疾), 쥐통, 췌-병(췌病), 호역(虎疫)
말라 리아	말라리아열, 학, 학질	학질(瘧疾), 학(瘧), 학병(瘧病)	학질	말라리아-열(malaria熱), 학(瘧), 학질(瘧疾)
페스트	서역, 흑사병	서역(鼠疫), 흑사병(黑死病)	흑사병	서역(鼠疫), 흑사-병(黑死病)

전염병 관련 어휘에서 전염병명의 유사어가 많은 것, 예전에는 주로 한자로, 근래에는 영어로 표기한 것, 그리고 전염병명에 주된 증상을 나타내면서 병에 대한 공포는 물론 병을 귀한 존재로 여기기도 한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염병 관련 어휘에는 전염병의 정보를 전염병 관련 어휘에서 전염병명의 유사어가 많은 것, 예전에는 주로 한자로, 근래에는 영어로 표기한 것, 그리고 전염병명에 주된 증상을 나타내면서 병에 대한 공포는 물론 병을 귀한 존재로 여기기도 한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염병 관련 어휘에는 전염병의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염병명의 의미 기술을 살펴본 바, 주로 감염 원인이나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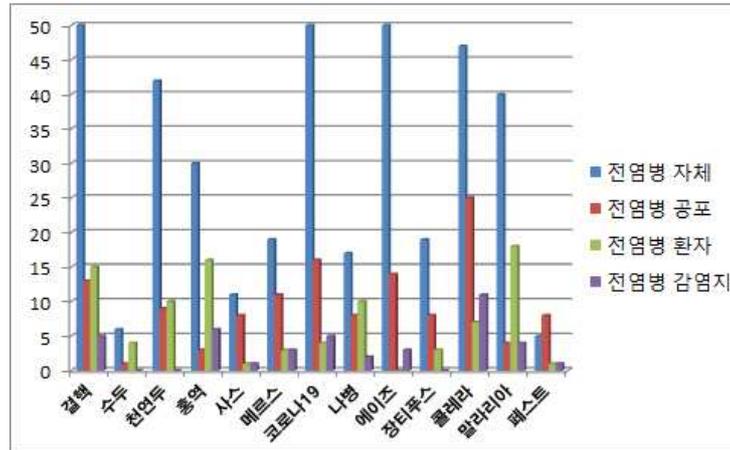
#### IV. 전염병 관련 표현

분석 대상인 네 종의 국어사전에 나오는 예문을 조사해서 전염병에 대한 표현을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인 13개 전염병명과 이의 유사어를 각각 검색해서 나온 총 724개의 예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염병 지칭’하는 말, ‘전염병의 공포’를 나타내는 말, ‘전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말, 그리고 ‘전염병 감염지’와 관련한 말,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표현되었다.

<표 5> 전염병 관련 표현의 유형별 개수

유형 병명	전염병 지칭	전염병 공포	전염병 환자	전염병 감염지	계
결핵	53(61.6%)	13(15.1%)	15(17.4%)	5(5.81%)	86
수두	6(54.5%)	1(9.1%)	4(36.4%)	0(0%)	11
천연두	42(68.9%)	9(14.8%)	10(16.4%)	0(0%)	61
홍역	30(54.5%)	3(5.5%)	16(29.1%)	6(10.9%)	55
사스	11(52.4%)	8(38.1%)	1(4.8%)	1(4.8%)	21
메르스	19(52.8%)	11(30.6%)	3(8.3%)	3(8.3%)	36
코로나19	109(81.3%)	16(11.9%)	4(3%)	5(3.7%)	134
나병	17(45.9%)	8(21.6%)	10(27%)	2(5.4%)	37
에이즈	65(79.3%)	14(17.1%)	0(0%)	3(3.7%)	82
장티푸스	19(63.3%)	8(26.7%)	3(10%)	0(0%)	30

콜레라	47(52.2%)	25(27.8%)	7(7.7%)	11(12.2%)	90
말라리아	40(60.6%)	4(6.1%)	18(27.3%)	4(6.1%)	66
페스트	5(33.3%)	8(53.3%)	1(6.7%)	1(6.7%)	15
합계	463(64%)	128(17.7%)	92(12.7%)	41(5.7%)	724



[그림 1] 전염병 관련 표현의 유형별 개수

연구 대상의 전염병에 대한 표현을 유형별 개수로 살펴본 결과, ‘전염병 지칭’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다. ‘전염병 공포’, ‘전염병 환자’, 그리고 ‘전염병 감염지’의 순으로 나왔다. 코로나 19와 에이즈는 80% 정도가 ‘전염병 지칭’ 표현에 해당하였고 나머지는 ‘전염병 지칭’의 표현 비율이 50-60% 정도이다. 그런데 페스트의 경우, 관련 표현의 총 개수가 15개로, 적은 편이나 ‘전염병 지칭’의 예시문(5개, 33.3%)보다는 ‘전염병 공포’를 표현한 예시문(8개, 53.3%)이 더 많았다. ‘전염병 공포’의 예문에서 주로 ‘14세기’, ‘중세’, ‘유럽’ 등의 말로 시대와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페스트와 관련한 예문 수가 적고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님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어서 다른 전염병에 비해 한국 사회에 그리 만연한 전염병은 아니었을 듯하다. 하지만 전염병 공포에 대한 표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어느 전염병처럼 무서움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염병 표현의 개수가 대부분 ‘전염병 지칭’, ‘전염병 공포’, ‘전염병 환자’, ‘전염병 감염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홍역, 말라리아, 나병, 결핵, 천연두의 경우는 ‘전염병 지칭’ 다음으로 ‘전염병 환자’의 개수가 ‘전염병 공포’보다 더 많았다. 이 가운데 홍역, 말라리아, 나병의 경우는 결핵(17%), 천연두(16%)에 비해 ‘전염병 환자’의 비율이 각각 29%, 27%, 27%로 약간 높은 편이다. 그리고 콜레라는 ‘전염병 지칭’, ‘전염병 공포’의 순으로 전염병 표현의 개수가 나왔는데 세 번째 순위가 ‘전염병 감염지’이고 마지막이 ‘전염병 환자’가 차지하였다. 또한 ‘전염병 감염지’의 개수를 봤을 때, 콜레라만 11개이고 나머지 모두는 0~5개 사이이다. 특히 콜레라의 유사어인 괴질에서 6개가 나왔는데 감염지와 타지역과의 봉쇄에 대한 표현이고 콜레라의 예문에서는 특정 지역이 감염되었다거나 발생지라는 표현일 뿐이다. 괴질이 콜레라를 속되게 이르기도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라는 뜻인 만큼 단순히 감염지와 발생지를 나타내기보다 감염지와 타지역에서의 사람들이 접촉하거나 유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염원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전염병 지칭’에서는 코로나19의 표현이 109개, ‘전염병 감염지’에서는 콜레라의 표현이 11개로 개수 면에서 가장 많다. 비율로도 각각 81%, 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염병 공포’에서는 콜레라가 25개(총 90개)로 개수는 가장 많은데 메르스가 총 36개 중 11개(30.6%)로 비율이 가장 높다. ‘전염병 환자’에서는 말라리아가 18개(총 66개)로 가장 많은 개수로 나타났지만 홍역이 총 55개 가운데 16개로 29.1%를 차지하여 비율로 봤을 때는 홍역이 가장 높다. 다시 말해, 전염병 표현 개수로 살펴봤을 때 ‘전염병 지칭’은 단연코 코로나19가 가장 많다. ‘전염병 공포’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은 콜레라와 페스트, ‘전염병 환자’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전염병은 말라리아와 홍역이다. 그리고 ‘전염병 감염지’의 표현으로는 콜레라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콜레라 전염병 표현 가운데는 ‘전염병 공포’는 25개(27.8%) 페스트는 8개(53.3%)이고 ‘전염병 환자’에서 말라리아는 18개(27.3%), 홍역은 16개(29.1%)로, 개수가 아닌 비율 측면에 보면 상대적으로 페스트와 홍역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염병에 대한 표현을 네 가지 유형별로 그 사례를 살펴본다.

#### 가. 전염병 지칭

1. 의학의 발달로 천연두는 역사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 - 천연두
2.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 결핵
3. 수두는 조용히 병상 생활을 하면 발진한 후에는 자연히 치유된다. - 수두
4. 그 의사는 평상을 바쳐 나병을 연구하고 나환자를 치료하였다. - 나병
5. 의학계에서는 머지않아 에이즈가 정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에이즈
6. 장티푸스를 독감으로 오진하였다. - 장티푸스
7. 오늘은 콜레라 예방 주사를 맞는 날이다. - 콜레라
8. 말라리아는 말라리아모기가 감염원이다. - 말라리아
9. 이제 천연두나 페스트 등은 지구상에서 멸종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페스트
10. 메르스는 사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스 치료와 같이 접근한다. - 사스
11. 예상 밖으로 낙타에서만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검출됐다. - 메르스
12. 25-35년 전 홍역 예방 접종을 했다면 면역 효과가 떨어졌을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맞을 필요가 있다. - 홍역
13. 코로나19는 무증상 전파가 특징이다. - 코로나19

전염병 지칭은 전염병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제시된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정보)을 알리는(전하는) 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식 측면에서 천연두와 페스트는 과거에는 두려운 질병이었으나 현재는 이 전염병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멸종되었다’고 표현할 만큼 사라진 질병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른 표현에서도 ‘치유된다, 치료했다, 치료와 같이 접근한다, 예방 접종을 더 맞을 필요가 있다’와 같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병으로 여기고 있다. 총 724개 중 전염병 지칭에 속하는 463개의 사례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인식을 표현하기보다는 단순히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대다수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전염병 관련 표현 가운데 전염병 지칭 유형에 81.3%(109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명칭이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기술한 바, ‘Corona Virus Disease 2019’의 영어를 줄여서 ‘COVID-19’라고 하며 이를 한국말로 ‘코로나19’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영어이다 보니, 전염병이 발생되고 확산 초기

에 'COVID'를 알파벳인 '시오브이아이디'로 칭하기도 하고 'Corona Virus'를 한국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Corona Virus Disease'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숫자인 '19'도 '십구'라고 하기도 '일구'라고 하기도 하여 '코로나19'가 다양하게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병을 다양하게 가리킨 만큼 전염병 지칭에 대한 내용도 많아 다른 유형인 '전염병 공포', '전염병 환자', '전염병 감염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염병 지칭 유형의 비율이 80% 정도인 다른 전염병으로는 '에이즈'가 있는데 총 82개 가운데 전염병 지칭에 해당하는 개수는 65개로 79.3%를 차지하였다. '에이즈'도 '코로나19'처럼 영어 단어의 첫 글자(알파벳)를 가져와 조합해서 만든 병명으로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을 'AIDS'로 쓰고 '에이즈'로 칭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유사어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AIDS' 알파벳을 옮겨서 '에이아이디에스'라고도 일컫고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을 한국말로 번역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또는 '후천성 면역 증후군'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에이즈는 전염병 지칭이 80% 정도이고 다음으로 '전염병 공포'가 17.1%를 차지하고 있다. 에이즈의 경우 전염병 환자에 대한 표현은 없었으며 '전염병 감염지' 표현은 3.7%가 나왔다.

다양한 명칭으로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천연두'인데 '코로나19'의 경우 유사어가 11개로 나타난 것에 비해 천연두는 14개이다. '천연두'는 전염병을 지칭하는 표현이 68.9%로 가장 높으나 '전염병 공포'와 '전염병 환자'가 각각 14.8%와 16.4%로 15%정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19는 전염병 지칭의 비율이 매우 높고 '전염병 공포'는 11.9%, '전염병 환자'가 3%, '전염병 감염지'가 3.7%로 다른 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코로나19'나 '에이즈'의 경우 다양하게 불리는 것이 영어 이름을 알파벳으로 또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칭하는 거라면 '천연두'는 언급한 두 전염병명과 다르게 '천연두'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두창', '두병', '두역', '역신', '역질', '역환', '천행두', '포창', '호역', '마마', '손님 마마' '열사흘부스럼' 등으로 표현하여 단순 질병을 비롯한 전염병 증상, 전염병 귀신, 존귀한 존재 등 여러 의미로 나타내고 있어서 앞의 두 전염병명처럼 하나의 이름을 단지 알파벳으로, 한국어로 바꿔 부르는 것은 아니다.

#### 나. 전염병 공포

1. 천연두가 검어 꺼지고 답답하여 헤매고 정신이 아득하면 죽는다. - 천연두
2.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이다. - 결핵
3. 수두의 전염률이 구십 퍼센트 이상이니 학교에는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수두
4. 생업에 대한 위협과 나병에 대한 원시적인 공포감이 인근 주민들의 처지를 그토록 절박하게 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 나병
5. 피고인은 복수심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에이즈를 감염시켰으므로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에이즈
6. 어머니가 갑자기 고열과 복통으로 쓰러졌다. 장티푸스였다. 사람들은 손을 내저으며 헛간에도 들어려 하지 않았다. - 장티푸스
7. 콜레라의 창궐로 인해 이 마을을 폐허가 되었다. - 콜레라
8. 지난해 휴전선 일대에서 말라리아가 재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 말라리아
9. 14세기 유럽에는 페스트의 유행으로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왔다. - 페스트

10. 중국 전역에 사스 경고령이 내려진 가운데 수도 베이징은 새해를 맞아 사스 경보 체제에 돌입했다. - 사스
11. 특히 지난달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메르스 주의보’를 내릴 정도로 최대 고비의 달이었다. - 메르스
12. WHO(세계보건기구)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2018년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1000만 명이었으며 환자 중 약 14만 명이 사망했다. - 홍역
13. 코로나19 사망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웃도는 등 확산세는 여전히 심각하다. -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표현 가운데 위에 제시한 사례들은 ‘전염병 공포’를 나타낸 것으로, 예시문에 나오는 단어가 ‘죽는다, 생명을 앗아간다, 전염률 90퍼센트, 공포감, 창궐, 불안감의 확산, 노동력의 부족, 경고령(경보 체제), 최대 고비, 사망했다, 여전히 심각하다’ 등 표현된 단어만 보아도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염병 공포 유형에 속하는 총 128개의 사례를 워드클라우드(WordCloud)로, 그 표현을 살펴보았다.<sup>9)</sup> 워드클라우드는 자주 나오는 단어일수록 글자 크기가 크게 나타나도록 시각화하는 것인데 전염병 공포 표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전염병 공포 관련 표현의 워드클라우드 결과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망자, 있다, 높다, 떨쳤다’의 글자가 커서 눈에 먼저 들어오고 ‘맹위, 죽는다, 비상, 공포, 메르스, 감염, 많은, 위험이’ 등도 보인다. ‘있다’의 경우, ‘확산되고 있다, 비상이 걸려 있다, 인명 피해가 있다, 몰사한 집이 있다’등의 표현에 나오는 말로,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이고 보조 동사 ‘-고 있다, -아/어 있다’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높다’는 전염률, 감염률, 사망률이나 감염 위험, 발병 위험, 창궐 위험, 사망 위험처럼 이런 표현과 함께 나왔다. 나머지는 전염병 공포인 만큼 ‘사망자, 죽는다, 비상, 맹위, 공포, 비상, 감염, 위험’처럼 전염병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임을 잘 드러내는 표현들이다.

다. 전염병 환자

1. 예전에는 천연두 때문에 얼굴이 뒤엎은 사람도 많았다. - 천연두

9) 워드클라우드 <http://wordcloud.kr/>

2. 발은 기침과 수척한 몰골로 보아 결핵일 가능성이 농후했으나 진찰은 막무가내였다. - 결핵
3. 어려서 수두를 심하게 앓았다는 그녀의 얼굴은 거의 콩명석이 되어 있었다. - 수두
4. 나병보다 나환자를 더 괴롭히는 것은 나환자의 모습에 막연히 부여된 이미지였다. - 나병
5. 에이즈 없음
6. 장티푸스 예방액인지 가득히 주사기에 넣고는 가족들에게 농땡이 어깨에다 마구 찢러 대며 접종했다. - 장티푸스
7. 그녀는 몇 년 전 콜레라에 걸려 가족과 격리된 경험이 있다. - 콜레라
8. 연아가 말라리아의 열로 심하게 한전이 났다. - 말라리아
9. 쥐가 옮기는 페스트균은 사람의 피부를 흑자색으로 변하게 한다. - 페스트
10. 각 나라 방역 당국이 사스 확산의 주범 노릇을 하는 슈퍼 전과자를 막기 위한 비상을 걸었다. - 사스
11. 또 다른 병원에서는 근무하는 한 여직원도 ‘메르스 병원’에 일한다는 이유로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분만 수술을 거부당하는 등 이미 낙인 피해가 현실화됐다. - 메르스
12. 홍역에 걸린 아기 몸에 발긏발긏 열꽃이 돋았다. - 홍역
13. 25번 확진자가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격리에 들어갔다. - 코로나19

전염병 환자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염병에 걸린 후에 환자에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염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위에 제시된 사례에서도 1, 2, 3, 8, 9, 12번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얼굴이 뒤엎은, 발은 기침과 수척한 몰골, 콩명석, 한전, 흑자색 피부, 열꽃 등은 감염된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나환자를 더 괴롭히는 것은 나환자의 모습에 막연히 부여된 이미지, 가족들에게 농땡이 마구 찢러 대며, 격리된 경험, 주범 노릇, 낙인 피해, 25번 확진자의 재격리’의 표현으로 전염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염병의 전파나 확산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언중들은 감염된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격리라는 말이 다른 곳으로 떼어 놓는다는 것으로, 격리되는 순간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으로부터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서 전염병 환자들은 고립감, 외로움, 거부감, 소외감 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사례에서 ‘25번 확진자’라고 하였듯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 감염자들을 ‘N번’으로 번호를 매겨 지칭하고 이들의 동선과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고 누리꾼들에 의해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전염병 환자에 나타난 표현에서 전염병에 걸린 환자는 감염된 직후 사람들과 멀리 지내면서 병과 싸워야 함을 물론이고 병에 걸렸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라. 전염병 감염지

1. 천연두 없음
2. 가난병 또는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결핵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 결핵
3. 수두 없음
4.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 작은 섬에 어느 날 신참 환자들이 실려 왔다. - 나병
5. 경제가 낙후된 나라일수록 미성년 에이즈 감염자가 많다고 한다. - 에이즈
6. 장티푸스 없음

7. 콜레라가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 콜레라
8. 말라리아나 결핵 같은 후진국성 전염병도 얼마 전부터 선진국에서조차 다시 기승을 부릴 체비를 하고 있다. / 말라리아는 열대 지방에서 온대 지방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풍토병이다. - 말라리아
9. 페스트 없음
10. 사스가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 것은 이 질병의 최초 발생국인 중국이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한 탓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 사스
11. 당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메르스의 최고 유행지가 되며 ‘코르스’라는 냉소적인 농도 나왔습니다. - 메르스
12. 당시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홍역이나 열병에 걸려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 - 홍역
13. 모두 1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00 병원은 지난 3월 말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 코로나19

전염병 감염지에 대한 표현은 그저 감염 지역,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감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례 7처럼 콜레라가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였다고 감염지 소식을 알리기도 한다. 또한 사례 4와 13처럼 각각 격리 장소나 지역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격리와 관련해서 전염병 환자에서는 격리와 환자를 결부해서 부정적인 자세로 표현하였다면 전염병 감염지에서의 격리 표현은 격리 장소와 지역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물론 사례 4에서 나병 환자들만 별도로 격리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환자에 나타나는 표현에 비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덜 반영되어 있다.

사례 10~11의 표현에서 최초 발생국이나 최고 유행지라는 이유로 비난과 냉소적인 태도를 취함을 알 수 있다. 결핵의 경우, 전염병 감염지 관련 예문으로 5개가 있는데 5개 모두 ‘후진국(성/형) 질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에이즈도 전염병 감염지 표현이 총 3개인데 2개가 개발도상국과 경제가 낙후된 나라에서 감염자가 많다는 표현이다. 말라리아의 전염병 감염지 표현 4개 가운데 1개가 후진국성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사례 12에서 후진국처럼 나라를 나타내지 않지만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해당 질병이 잘 걸리는 것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V. 결론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 발병한 전염병을 대상으로 언중들이 이 질병들을 어떻게 칭하였는지 전염병명과 해당 전염병과 관련한 표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 종의 국어사전을 조사하여 전염병 관련 어휘와 전염병 관련 표현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전염병 관련 어휘를 조사한 결과, 전염병 명칭은 대부분이 한자와 영어로 표현되고 있었다. 연구 대상의 전염병 가운데, 천연두가 다른 전염병에 비해 유사어가 가장 많은 전염병이었다. ‘코로나19’와 ‘에이즈’도 유의어가 많았지만 천연두는 다양하게 불린 것에 비해 이 유의어는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단순 번역한 유사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전염병명마다 여러 유사어를 가지는 바, 한국어 화자들은 주요 전염병을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 왔음을 알 수 있다. 전염병명은 주로 감염 원인 및 경로나 증상 등 여러 병에 대한 정보와 전염병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 등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근래에 발병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여러 전염병명에 그 병의 무서움을 표현하는 명칭이 유사어로

나타나기도 하여 전염병의 고통을 질병의 이름에 나타내기도 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전염병 관련 표현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예문이 나타난 전염병은 최근에 발병하여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였다. 전염병 관련 표현은 크게 전염병 지칭, 전염병 공포, 전염병 환자, 전염병 감염지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염병 관련 예문 가운데 전염병을 지칭한 표현이 가장 빈번하였고, 전염병 공포, 전염병 환자, 전염병 감염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염병 지칭 예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병 공포와 전염병 감염지 예문에서는 콜레라가, 그리고 전염병 환자 예문에서는 말라리아 표현이 많았다. 전염병 지칭은 전염병 자체를 가리키고 일컫는 표현이었고 전염병 공포에서는 사망자, 죽는다, 감염률/전염률 높다 등이 표현이 빈번하였다. 전염병 환자의 표현에서는 환자의 증세를 표현하거나 그 증세와 전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자세를 드러내고 있었다. 전염병 감염지에 대한 표현은 감염 지역과의 격리와 전염병 발생 및 유행 지역의 비난과 함께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파 초창기에 확진자(단체)나 감염 유행지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증가하여 급기야 미국에서는 코로나 19 증오범죄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염병의 두려움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낳기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 사회의 전염병명과 관련 표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염병 환자나 감염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자세를 가급적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신에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이를 이겨내는 데에 힘을 쓰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논문>

- 김기홍(2020), 전염병 희생양과 보건 선전영화, 그리고 공공성, 월간 공공정책, 174, 한국자치학회, 102-107.
- 김서형(2014), 전염병과 소수집단 배제의 담론: 1918년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15, 대구사학회, 393-426.
- 김은정(2015),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70, 한국문학회, 293-332.
- 김하라(2016), 양란(兩亂) 이후 상소문에 나타난 질병 표현의 변화: 조경(趙綱)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33, 국문학회, 96-121.
- 박은하(2019),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과 인식에 대한 말뭉치 용례 연구, 사회언어학 27(4), 한국사회언어학회, 89-116.
- 박은하(2018), “남자답다/여자답다”와 “남성스럽다/여성스럽다”의 사용 양상과 인식에 대한 연구: 말뭉치와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5-62.
- 박은하(2016), 한국어 교재와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괜찮다’의 사용 양상과 의미 기능, 중국조선어문 20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39-50.
- 송미영(2020가), 세종원 한글 의학 교과서에 나타난 전염병 관련 어휘에 대한 고찰: 두창과 콜레라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1, 국어사학회, 233-263.
- 송미영(2020나), 한국인의 주요 전염병과 그 명칭에 대한 통시적 고찰: ‘장티푸스, 말라리아, 한센병’ 등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84, 중앙어문학회, 7-43.
- 송현주(2020), 전염병의 개념화 양상: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14,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103-129.
- 송현주(2018), 질병 담화에 나타난 비유 표현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41-156.
- 신건수(2020), 코로나19 사태로 본 전염병과 현대 공간, 건축 64(3), 대한건축학회, 72-74.
- 신안식(2020), 전통시대의 전염병, 역병, 월간 공공정책 175, 한국자치학회, 98-101.
- 우미영(2004), 근대초기 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115-138.
- 이갑남(2020), 중국어와 한국어의 건강과 질병 관련 속담 대조 연구, 동아인문학 50, 동아인문학회, 199-232.
- 이갑남(2017), 중한 금기어와 완곡 표현 대조 연구: 죽음과 질병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41, 동아인문학회, 125-153.
- 이미순(2013), 김수영 문학에 나타난 질병의 양상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141-171.
- 이정복(2007),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257-300.
- 장근호·최규진(2019), 개화기 서양인 의사의 눈으로 본 한국인의 질병: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1886년)와 ‘대한제국병원 연례보고서’(1901년)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36, 역사학연구소, 45-97.

- 전종휘(9181), 지난 1세기 간의 전염병, 감염 13(1), 대한감염학회, 43-50.
- 전혜영(2016), 은유 표현을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관, 한국문화연구 30(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33-161.
- 전혜영(2015), 질병 명칭에 나타나는 의미적 특성, 언어와 정보사회 2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81-216.
- 최충익(2015), 서울의 전염병 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사적 고찰, Crisisonomy 11(9),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119-133.

### <저서>

예병일(2015), 세상을 바꾼 전염병, 도서출판 다른.

### <기타>

고려대 한국어사전 <https://dic.daum.net/index.do?dic=kor>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https://corpus.korean.go.kr/>

국립국어원 십표, 마침표  
<https://news.korean.go.kr/index.jsp?control=page&part=view&idx=12824&preview=null>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연세대 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dic/?keyword>